



박찬선
설비시험팀장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는 가정에서 가끔 발생하는 튀김남비 기름의 과열로 인한 발화, 석유난로 주유중 인화에 의한 화재, 부주의한 불의 처리에 의한 휴지통 화재 등 비교적 초기 단계의 화재에 사용되는 간이소화용구이다.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의 장점은 소화기에 비해 Compact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용기처럼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점이다. 또 소화기에는 소화능력단위(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을 가리키며 각각 1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가 있지만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에서는 실제로 꼭 맞는 적응 소형화재(능력단위 1미만) 중 대표적인 6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적응화재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할 경우 화재의 종류에 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를 판매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6호(1999. 8. 3)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의 용기에는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있고, 또한 가압가스(일반적으로 질소가스가 사용되고 있다)로 항상 가압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레버 ①을 누르면 밸브 ②가 열려 가압된 가스에 의해 소화약제가 투브③을 통해 노즐 ④에서 방사된다.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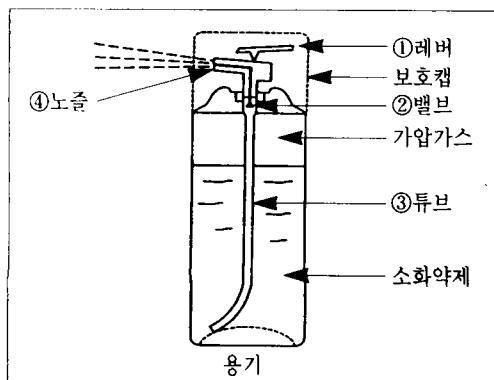
화재구는 소화약제

의 종류(강화액, 기계포, 분말 ABC 및 침윤제를 혼합한 것 등), 약제량, 방사시간 등이 다양하여 그에 수반하는 적응화재라는 소화능력도 달라 모든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는 공통인 적응화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그림에 예시하는 유효성 있는 소규모 화재에 대하여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들 6종류의 화재에 대하여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의한 소화시험의 합격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6종류」까지 자유롭게 조합시킬 수 있다.



그래파이트(Graphite)화 현상

그래파이트(石墨)화 현상은 목재, 플라스틱 등 유기 절연체가 전기불꽃 등에 두들겨 맞아 절연체 표면에 미소한 탄화도전로가 생성되어 그 부분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줄(Joule) 열에 의해 서서히 입체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전류가 증가하고 발열량도 증가하여 결국에는 그 곳에서 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그래파이트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에 트래킹(Tracking)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트래킹 현상은 경년변화, 진애(塵埃) 기타 오염물질의 부착 또는 습기, 수분의 영향 등 유기 절연체의 표면이 어떤 원인





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소불꽃에 의해 탄화 도전로가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양자는 절연체 표면에 탄화 도전로가 생성되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지만 그래파이트화 현상은 저 압 누전화재의 출화기구로서 가네하라씨가 발견한 현상(가네하라 현상이라 한다)으로 출하까지 포함되어 의미가 있는데 비해 트래킹 현상은 전기 절연재료의 절연성능의 열화현상의 하나로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탄화도전로의 생성이 최종적으로는 단락이라든가 지락이라고 하는 절연파괴를 초래하는 것으로 출화여부까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양자는 지금까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지만 화재원인 조사상 관례적으로 전기·기계기구에 나타나는 경우를 트래킹현상, 전기·기계기구 이외에 나타나는 경우를 가네하라현상(Graphite 현상)이라고 받아 드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파이트화 현상의 정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래파이트현상의 정의

트래킹 현상	가네하라 현상
전기제품 등에서 충전전극 사이의 절연물 표면에 어떤 원인에 의해 탄화전로가 생성되어 결국에는 단락·지락으로 발전하여 출화하는 현상	누전회로속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등에 의해 목재 등에 탄화도전로가 생성되어 도전로의 증식확대에 따라 발열량이 증대하여 출화하는 현상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의 약자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Sub-System 또는 기기에 착안하여 이들에서 일어난다고 예측되는 모든 고장 Mode(고장상태)를 찾아내어 각 고장 Mode의 원인,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의 영향, 고장의 등급(영향의 크기), 대책 등을 설정, System 설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검토함으로서 System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성적인 해석방법이다.

FMEA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 ①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설정, 시스템의 임무, 구성 기기의 기능을 확인한다.
- ② 고장을 예상하는 시스템의 분해 Level (예를 들면 Sub System Level, 기기 Level)을 결정한다.
- ③ 시스템의 기능 block[圖], 신뢰성 block[圖]를 작성한다.
- ④ 각 분해 level에서 예측되는 고장 mode를 우선 열거하고 이어서 해석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고장 mode를 선정한다.
- ⑤ 각 고장모드의 원인을 설정, system으로의 영향검토, 고장의 검출법을 검토한다.
- ⑥ 고장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다.
- ⑦ 고장의 등급을 평가한다.
- ⑧ 고장의 등급이 높은 것은 설계변경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최소착화에너지(最小着火 Energy)

최소 착화에너지는 가연물질과 지연물질(支燃物質) 등이 혼합된 가연성 혼합물이 외부로부터의 착화원에 의해 착화하는데 필요로 한 착화원의 최소에너지로, 가연성 혼합물의 조성, 온도, 압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상온, 1기압에서, 공기와의 혼합에서 착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혼합농도에서의 최소 착화에너지를 말한다.

최소 착화에너지의 측정에는 착화원으로서 일반적으로 2개의 금속 전극간에서의 용량방전불꽃이 사용되지만 이 방전은 정전기 방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최소 착화에너지는 가연성물질의 착화위험성의 하나의 표준이 된다.

분체의 착화에너지는 분체의 입경(粒徑), 모양에 따라서도 현저하게 다르다.